CNI세미나 2018-078

제33회 충청중국포럼

충남과 차이나(China)는 관광전략

일 시 : 2018. 08. 29.(수), 10:00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제33회 충청중국포럼

■ 충청중국포럼은 2015년 5월 출범 이후 충남도와 시, 군 대(對)중국 교류 관련 업무 담당자의 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교류의 장으로 개최, 운영되어 왔음.

■ 이번 제33회 충청중국포럼에서는 아주경제신문 홍석민 기자가 『충남과 차이나(china)는 관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관련 토론이 이어질 예정임.

■ 이번 포럼을 통해 현 중국의 관광 트렌드를 면밀히 살펴보고 충남 맞춤형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행사개요

○ 일　　시 : 2018년 8월 29일(수), 10:00~12:0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주　　제 : 충남과 차이나(china)는 관광전략

○ 강　　사 : 홍석민 (아주경제신문 부장)

○ 참석대상 : 충남도 및 산하 시, 군 중국교류업무 담당자, 기타 관심 있는 모든 분

행사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 개 회	사회: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 인사말씀	권영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10:05~11:35	‖ 발제 ‣ 충남과 차이나는 관광전략	홍석민 (아주경제신문 부장)
11:35~12:00	‖ 종합토론 ‣발표자, 참석자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12:00	‖ 폐 회	

프로필

▶ 직　　위 : 아주경제신문 부장

▶ 학　　력

대전고등학교

남서울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 전공

▶ 경　　력

충청투데이 기자

서울프로폴리스 해외 마케팅팀 대리

뉴스1 기자

충청신문 부장

아주경제 충청본부 부장

중남과 차이나(china)는 관광전략

홍석민 (아주경제신문 부장)

충남도와 차이나(China)는 관광 전략

발표자 : 홍 석 민

중국 관광현황

1. 현황

❍ 2017년 기준 해외관광 중국인 연인원수는 1억 3051명(전년대비 7% 증가)
- 해외 소비액 1152억 달러 (전년대비 5% 증가) 규모

❍ 2017년 한국 방문한 중국인은 417만명 (2016년 821만명, 전년대비 48.3% 감소)
-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452만명 (2016년 519만명으로 전년대비 13% 감소)

❍ 2017년 중국 해외 평균 소비는 5800위안 (900달러, 951만 70000 원)
해외소비 도시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중국 장쑤성 남동부 타이후호 동쪽에 있는 호반 도시), 원저우(중국 저장성 남부에 있는 도시), 선양(중국 랴오닝성의 성도), 창춘(중국 지린성의 성도) 順

❍ 중국에서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도시로는 상하이(중국 양쯔강 하구에 있는 중국 최대 도시), 베이징, 청두 (중국 쓰촨 성의 성도), 광저우(중국 광둥성의 성도), 선전(중국 광둥성에 있는 신흥 산업도시), 항저우(중국 저장성의 성도 順.

중국 관광현황

❍ 중국 관광 인구 중 여성이 59% 남성이 41%.
관광인구 연령 층별로는 1980년대 출생자가 31%, 1970년대 출생자 17%, 노년층 24%
- 1990~2000년대 출생자는 꾸준히 증가.

❍ 관광방식으로는 단체관광 44%, 개인관광 42%, 주문형 관광 14% 順
- 개인관광이 급 성장 중

❍ 좋아하는 관광지로는 유락장소, 유명 역사적 도시, 현대화 도시, 현지 특색 생활 체험, 유명 풍경 유적지, 온난한 바닷가, 휴양지, 힐링, 레저스포츠(바다탐험, 낚시 관광) 등

충남도 문화관광 실태

❍ 2017년 기준 방한 외국인 수는 1207만명(교포 및 승무원 제외)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금한령(한국 단체여행 전면금지) 조치로 중국 입국자 수가 급감하면서 2016년 대비 21.9%(265만명) 감소

- 중국 입국자 수는 399만 8000명으로 방한 외국인 수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금한령으로 2016년 대비 48.4%(192만명) 감소

❍ 한국 여행시 방문한 시도는 서울이 78.8%로 가장 높고, 충남은 1.3%로 17개 시도 중 13위 차지
- 충남지역 주요 방문지는 천안(독립기념관) 15.3%, 아산(외암민속마을) 6.5%, 계룡 황톳길 6.1% 순

충남도 문화관광 실태

❍ 중국인의 경우 관광정보를 대부분 인터넷 또는 왕홍,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얻고, 모임, 여행사 상품 추천, 지인추천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음.

❍ 중국인의 한국 쇼핑은 화장품, 전자기기, 건강식품, 아이디어 제품 순으로 이뤄짐.

❍ 관심분야로는 의류, 음식(삼계탕, 비빔밥,치맥), 액세서리, 드라마 또는 영화촬영지에 관심이 많으며, 그 외로 성형수술, 교정수술, 힐링 스포츠레저 관광, 템플 스테이도 인기.
=> 한국문화, 민속, 생활체험 등은 개인관광 중심으로 이뤄져 있음.

❍ 중국인이 즐겨 찾는 한국 관광지로는 서울, 제주도, 부산, 전주, 남이섬 등으로 주로 쇼핑, 관광, 음식, 자연 등의 목적으로 방문.

충남도 문화관광 실태

❍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한국 상품으로는 화장품, 인삼제품, 전자제품(쿠쿠,쿠첸), 건강 기능성 식품.

충남도 관광 현황

❍ 방한 중국의 방문 고려요인으로는 쇼핑(74.5%)이, 여행정보 입수 경로는 친지·친구·동료(71%)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우리 도는 다양한 분야의 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역 인지도 및 타 지역과 차별화되지 않은 관광상품 등으로 방한 중국인의 관광유도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

❍ 앞으로, 최근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충남의 다양성을 응집하고 지역성을 강화하는 중장기 관광 구상 필요

❍ 방한 외국인의 다수가 방문하는 수도권(94.4%, 방한 외국인 17개 시도 방문 중복응답)과의 관광 상품 연계 및 유도를 위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

충남도의 맞춤형 전략

❍ 성공적인 관광객,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인의 해외 전략 파악 및 분석 필요.
-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과 더불어 취향, 유행 동향 파악

❍ 중국은 중화사상으로 인해 문화와 상대국을 멸시하려는 경향이 있음.
- 상대국에 대한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데 인색.
-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중요.
(중국 관광객의 어느 관광지를 원하는 지,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관광정보 접근 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 강화.

충남도 관광객 유치 방안

1. 여건

❍ 충남도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27개소. 해수욕장 51개소, 자연 휴양림 14개소, 지역축제 97개, 성지 12곳 등 타 지자체와 뒤지지 않은 규모.

❍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소비계층도 다양화됨. => 관광 형태가 다양해짐. 제조업, 의료, IT산업, 한류관광 등 새로운 형태의 관광도 대두 됨.

❍ 내년까지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 산둥성 용안간 국제여객선 취항으로 충남도 관문 열림.

❍ 2023년 해미비행장에 민간 항공기 취항 (현재 제주 노선만 계획하고 있으나 추후 중국 취항 할 가능성이 있음.

충남도 관광객 유치 방안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대산까지 연결되면, 충남 도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으로 관광객 이탈.

=> 대산으로 입국해 태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과 가는 시간이 비슷하고, 홍성, 부여, 논산으로 이동 할 시에도 시간과 교통, 숙박시설 등이 안 좋음.

• 태안 이원면과 서산 대산 연육교 건설.

⇒연육교 연결에 이어 태안과 보령 대천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해변 도로 건설 필요.

• 대산항에 간이 시외버스 터미널 및 서산 태안간 교통체계 개선.

충남도 관광객 유치 방안

❍ 쇼핑 할 수 있는 곳과 면세점이 없음.

중국인들이 사고 싶은 화장품과 전자제품을 살 곳이 없어, 천안으로 가거나 서울로 가야 함.

=> 충남도 내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곳은 천안에만 있으며, 쇼핑을 할 수 있는 곳도 천안 밖에 없음

=> 더불어 전기밭솥 인 쿠쿠와 쿠첸을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곳도 천안 밖에 없으며, 홍삼제품은 부여 정관장 공장이 있으나, 중국 관광객의 교통편이 어렵고 단체 관광객도 받을 지 미지수.

• 서산에 면세점 유치와 백화점 건설에 노력.

⇒우선 천안과의 교통망을 구축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산 여객터미널의 면세점 확대 방안 필요.

충남도 관광객 유치 방안

❍ 충남도 내 숙박시설이 단체관광 시 수용하기가 힘듦.

=> 논산, 당진, 공주, 서천, 청양 등의 경우에는 리조트가 아예 없으며, 있는 태안,아산의 경우도 시설이 노후 됨.

=> 천안, 서산, 부여의 경우 리조트가 있으나, 객실 단체 예약으로 사용 할 수 양이 많아야 50객실 밖에 안됨.

=> 단체관광객을 분산해서 숙박을 이용 할 시 어려움이 따름

=> 이에 숙박 시설이 많이 있는 수도권으로 이탈.

❍ 개별여행객도 편의를 위해 숙박시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숙박시설에 대한 유치노력.

• 숙박시설 관계자들의 꾸준한 교육과 청결 유지 중요.

충남도 관광객 유치 방안

❍ 개별여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중국어가 가능한 관광인포메이션과 표지판을 중국어와 병행 표기.

=> 추후 '가상 현실 앱'을 만들어 중국 및 외국 관광객들이 편하게 여행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증강현실을 통한 개별 여행객을 위한 앱 개발.
- 교통편, 관광정보, 숙박, 맛 집 등이 포함 된 앱 개발 필요.

충남도 관광객 유치 방안

❍ 충남도의 홍보가 되어있지 않아 대산항에서 홍보가 되어 있는 서울, 전주로 갈 소지가 있음.

=>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국인들의 생각 속에 각인 시키는 것이 중요.

=> 지금까지 홍보를 보면, 잡지 및 신문에 한 두번 홍보를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홍보 필요.

=> 특히 팸 투어의 경우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왕홍을 이용해 홍보의 극대화에 노력.

팸투어 VS 서포터즈 VS 기자단이란?

구분	팸투어	서포터즈	기자단
의 미	사전답사		
성격	B2B개념	B2C	홍보성격
대상	여행사, 여행/관광 관계자 등을 초청	소비자가 될 사람을 초청	기자들 초청
목적	해당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및 모객을 위해 많이 진행.	직접 체험하고 생생한 현장을 본인의 블로그 및 SNS채널에 올리게 되는 그룹.	언론 매체 기자들을 초청하여 언론 매체를 통해 알리는 것.

팸투어 특징 및 변천

구분	
팸투어	-얼마 전까지는 파워 블로그를 초청해 진행 하는 경우도 많았음. -하지만 2016년 초 네이버가 파워 블로그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부터 파워 블로그를 통한 팸투어 진행이 많이 줄 음, -여행 관계자 및 지자체의 사전답사 개념이 더욱 강해져 단기적인 모객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
서포터즈	-얼마 전까지는 파워 블로그를 초청해 진행 하는 경우도 많았음. -하지만 2016년 초 네이버가 파워 블로그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부터 파워 블로그를 통한 팸투어 진행이 많이 줄었음, -여행 관계자 및 지자체의 사전답사 개념이 더욱 강해져 단기적인 모객을 늘리기 위한 수 단으로 진행.
기자단	- 초기에는 언론 매체 기자들을 초청하여 언론 매체를 통해 알리는 것 이었으나, 최근에는 언론매체가 아닌 일반 ' 컨텐츠 기자'로 확장됨. - 일반인들이나 특히 대학생들의 대외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힘. -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블로그(sns도 늘어나는 추세) 등의 활동으로 진행

왕홍이란

왕홍이란 중국 인터넷 스타를 뜻하는 말로 인터넷을 뜻하는 중국어 '왕뤄'와 유명인의 '홍런'이 합쳐진 말.

또한 왕홍은 중국SNS에서 팔로워 최소 50만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칭하는 신조어로 현재는 주로 웨이보, 웨이신 등 중국 SNS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17/19

왕홍이란

연예인의 인기만큼 유명한 왕흥 스타들이 SNS등에 사진을 올리면 그들이 입는 옷, 사용하는 화장품 등이 완판되는 일까지 벌여짐.

왕홍들은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영상 컨텐츠까지 제작하기 때문에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들의 입소문 마케팅이 큰 영향력을 행사해 경제 파급력이 커지자 중국에서 '왕홍경제'라는 말까지 등장 함

왕홍 마케팅 수단

- 글로벌 뷰티 브랜드 에스티로더의 그룹의 윌리엄 로더 회장은 '왕홍 마케팅이 TV광고보다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할 만큼 왕홍의 영향력은 엄청남.

- 스마트모바일을 이용하는 인구가 점점 늘면서 왕홍 마케팅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남.

- 왕홍의 바이럴 마케팅 한마디로 입소문 마케팅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 왕홍들은 주로 자신만의 채널을 가지고 있음.

- 개인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

왕홍 마케팅 수단

- 제품소개, 리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널을 운영함.
- 시청자는 주로 20~30대 소비자층으로 젊은 소비자층이 이용 하다 보니 화장품, 의류 쪽에 관심을 많이 보임.

- 그러다 보니 인기 왕홍을 착용한 의류나 사용한 화장품이 1초에 수 천 개씩 팔리는 등 우리나라 홈쇼핑과 비슷한 매출이 나온다고 함.

-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아 왕홍 마케팅이 우리나라보다 더욱 파급력이 클 것 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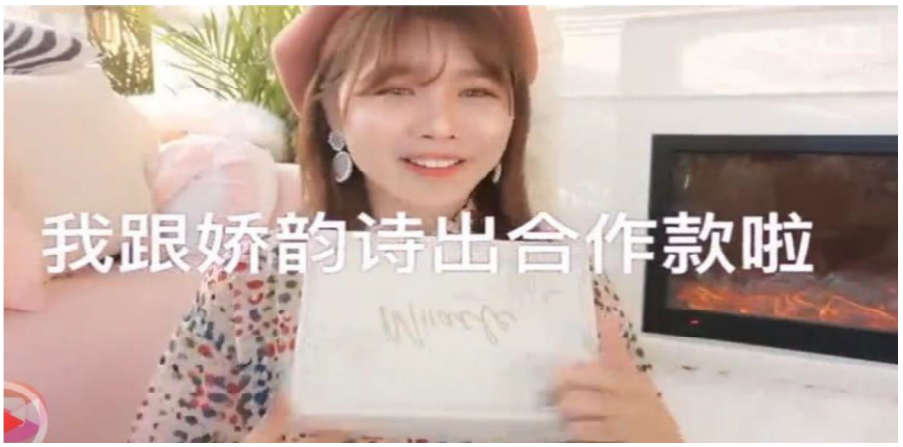
왕홍 마케팅 수단

- 왕홍이 이렇게 활성화된 시기는 2015년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중국 최대 동영상 업체 유쿠'와 '투더우'를 인수하면서 왕홍 마케팅이 엄청나게 증가됨.
- 이후 중국은 왕홍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됐고, 왕홍비즈니스를 형성

- 그러면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비디오 커머스라는 새로운 유통 채널이 뜨고 있음.
- 비디오 커머스는 동영상을 뜻하는 'Video'와 상업을 뜻하는 'Commerce'의 합성어로 동영상을 보면서 상품을 구매하는 마케팅 방식.
- 마치 홈쇼핑과 비슷하다.
- 여기에 중국 왕홍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양방향성 소통이 되면서 시청자들을 소비자로 만들어 버림.

무야란

3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 중국인이 잘 모르는 한국화장품의 후기를 SNS에 올리면서 유명해짐. 우리나라 유튜브랑 비슷하지만 팬들과 소통하며, 여러 화장품을 소개하고 직접 한국 명동까지 가서 한국화장품을 직접 구매하는 모습까지 보여줌. 현재 온라인 쇼핑몰 10여개를 직접 운영하며 연간 매출 65억원에 이룸.



장다이

46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 다양한 옷을 입는 모습의 사진을 웨이보에 올리면서 유명해짐. 장다이패션을 따라입는 네티즌이 늘자 장다이는 '타오바오'내 쇼핑물을 열음. 연간 소득이 510억원에 이룸.

왕니미

팔로워 1000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왕홍 왕니마는 웹툰, 동영상 등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음,

暴走大事作(폭주대사작)이라는 콘텐츠 안에서 마약, 식품, 안전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16년 왕홍 TOP100에서 2위까지 들 정도로 유명한 왕홍 스타임.

한국뚱뚱

중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인으로서 중국 대륙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국왕홍 한국뚱뚱. 뷰타 콘텐츠 쪽이 아닌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중국문로를 본 한국인, 한국 문화를 본 중국인 등 재미있는 주제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 그러지 이를 보고 신기해 하는 중국인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팔로워가 많아짐.

결론

- 충남도의 경우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여행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단체관광을 위한 준비로 해 나아가야 함.
- 개별관광을 위해서는 팸투어에서도 전략이 필요함.
- 팸투어에 여행사 대표들 보다는 왕홍 등을 이용한 홍보 필요 (한 두번의 홍보가 아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
- 개별관광을 위한 앱 개발과 새로운 교통체계 필요
- 중국인들이 습성과 더불어 관광업 종사자들 교육
- 관광자원으로는 중국이 더 크기때문에 새로운 전략 마련 (예를들면 먹방, 깨끗한 환경, 체험거리, 즐길거리, 쇼핑 등)

감사합니다

27/19

충청중국포럼 소개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론 충남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례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동향과 진단’,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회차	일시	세미나 주제	강사
1회	2015.5.26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철강도시의 미래	‖강희정(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회	2015.6.25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김한수(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3회	2015.8.26	‖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4회	2015.9.14	‖한중3농포럼	
5회	2015.10.28	‖중국 신형도시화와 3농문제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리홍보(중국쿤밍이공대학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박사)
6회	2015.11.25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한광수(금강대학교 총장)
7회	2016.1.27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이경복(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
8회	2016.2.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 유형과 대응전략	‖양광식(광양자유무역청 투자유치팀장)
9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공주대학교 교수)
10회	2016.4.20	‖한중 사회적 경제 국제세미나	
11회	2016.5.25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조현규(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주중한국대사관/주대만한국대표부 무관)
12회	2016.6.29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	‖고두환(공정여행사 공감만세 대표)
13회	2016.8.31	‖일대일로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14회	2016.9.28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5회	2016.10.26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특허청 과장, 前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16회	2016.11.30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17회	2017.1.18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고정식(배재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18회	2017.2.22	‖교육과 해외인재유치를 통한 중국의 발전전략	‖구자억(서경대 인성교양대학 학장)
19회	2017.3.29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 옌타이(烟台)·펑라이(蓬莱)의 포도와 와인산업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20회	2017.4.25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와 전략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1회	2017.5.30	‖환황해권 지방외교 활성화 합동 워크숍	
22회	2017.6.29	‖2017년 충남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 소개	‖조광옥(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23회	2017.8.30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홍인표(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교수, 前경향신문 부국장)
24회	2017.9.25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발전: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독	‖원톄쥔(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원장/지속가능발전고등연구원장)
25회	2017.11.29	‖사드 이후의 중국문화산업 전망	‖이건웅(차이나하우스 대표)
26회	2017.12.13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세미나	
27회	2018.1.31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원식(중국 북경대학교 박사)
28회	2018.2.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1: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29회	2018.3.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2: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30회	2018.4.25	‖지방자치단체 중국교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심장보(당진시 합덕읍 주무관, 전(前) 옥환시 파견공무원)
31회	2018.5.30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박경철(충남연구원 중국팀장)
32회	2018.6.27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이정희(인천대학교 연구교수)
33회	2018.8.29	‖충남과 차이나(china)는 관광전략	‖홍석민(아주경제신문 부장)

MEMO

MEMO